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복적복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 년 4 월 9 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송*서	학번	2021****	이름	최*원
	학번	2021****	이름	김*윤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변*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경				
참석인원	5 명							
선정도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 야마구치 슈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심비우스 북클럽 - 복적복적</p> <p>서론 - 들어가는 말</p> <p>먼저 같은 해 모두가 신입생이던 다섯 학우가 모였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입학하였지만, 현재는 각자의 관심 전공으로 흩어져 각기 다른 관심사와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p> <p>철학적인 주제에 공통으로 관심이 많으므로, 저희의 만남은 종종 이와 관련한 작은 토론의 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각자의 관점과 생각을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다섯 학우가 각자 눈여겨 본, 또는 읽고 싶었던 책을 추천하여 일상 속 문제들과 연관 짓고, 책 속의 시선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철학적, 사회적 문제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적 시각 차이와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또는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p> <p>지하철 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키오스크의 다양화와 개수 증가로 인한 사용의 어려움, AI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한 우리의 일상 등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 나눠보면,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양한 작품을 직접 읽어보지 않고도, 인스타의 짧은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요약된 형태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세</p>							

대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최소화되고 간결해진 글과 영상들만 찾아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며, 과거 책을 직접 읽고 누리던 저희의 모습을 잠시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기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직접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진행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공부하고, 책을 쓴 저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그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북클럽에서 함께 읽게 될 책들의 공통점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철학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북클럽을 통해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이해해 보고, 그들의 시각을 적용한 토론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러한 주제와 이에 관련된 도서들을 각자 1권씩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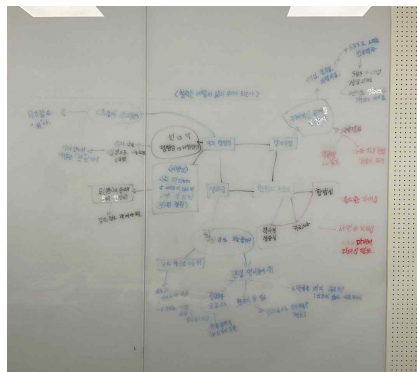
철학이란 모두의 삶을 증명해 내는 과정의 연속(인생)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대립하거나, 잘 맞았던 부분들을 추천해 주고 질문해 보며 그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매주 한 권씩 읽고 화요일마다, 오후에 만나 토론하는 것으로 약속하며 북클럽을 성실히 이행해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북클럽이라는 하나의 장을 통해 모두가 각자의 철학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240409 심비우스 북클럽 1회차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 야마구치 슈



1. 선정 주제

<p. 98 악의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

*서

- 대부분은 선과 악, 혹은 평범함과 비 평범함의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된다.

악이란 비평범함에 속하고 선이란 평범함에 속한다고 보는데, 악의 평범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다루는 아이히만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유대인 학살 계획을 지휘하는 등의 악한 행동을 많이 저질렀다. 아이히만의 '악한' 행동의 이유는 상부의 시스템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시스템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데, 쿠데타의 경우 또한 선한 행동이 될 수도 악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불분명하고, 선악의 양면성은 확실하다. 악과 선의 구분에 대해서, 나아가 성악설과 성선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책의 82쪽, <타고난 능력이란 없다, 경험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타블라 라사, 존 로크>를 보면 타블라 라사라는 라틴어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석판'이라는 의미로 태어날 때 사람의 심성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석판, 즉 타블라 라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타블라 라사를 어떻게 적어 가느냐에 따라 선악이 정해지는 것 아닐까.

***경**

-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과 연관 지어 얘기해 보자면, 이 소설의 주인공 뫼르소는 단순히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뫼르소가 살인이라는 행동을 저지르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무례한 말을 사용하는 직원과,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본인의 신념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도 그의 살인 이유가 되곤 했다. <이방인>이라는 책은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하는 책이었는데, 이 주제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선과 악,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협상의 진행에 있어서, 협상 대상이 악하다고 생각한 채 협상을 진행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배웠다. 상대를 악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無)의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상대방을 선악의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무(無)의 상태로 바라보는 시선을 적용해야 사회 속의 혐오와 갈등이 사라질 수 있지 않나 싶다.

***현**

- 선악의 구별 자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도덕적 관념은 대부분 기독교적 관념에서 온 것이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우리는 기독교적 관념을 부수고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해야만 제대로 된 발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가? 이 두 개념은 대비되는 개념인가, 연관 지어 볼 수 있게 관련되어 있는가?

Q. 그렇다면 악의 반대 개념이 선이라고 생각하는가?

A. 애초에 선과 악의 개념이 존재하는가? 만약 내가 옆 사람이 차에 치여 다칠 것 같아 지켜주려는 선한 이유로 그 사람을 밀쳤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차에 치였을 때보다 내가 밀친 것으로 인해 더 크게 다쳤을 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나쁘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듯 선과 악을 규정지을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윤**

- 책 속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우리가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와 같이 단정하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책을 몇 장 찢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대다수의 학생이 아무런 의문 없이 그의 부탁에 응했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착한 사람일수록 군말 없이 그 부탁을 따른다고 생각한다.
- 아이히만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성실한 독일의 한 공무원이었을 뿐이고, 본인의 죄를 묻는 법정에서 진술 과정 속 '나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때 본인의 주관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또한 악이라고 바라보는 것 아닐까. 단순히 선악의 구별은 이해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원**

- '무지함은 죄다.'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을 경우에도 본인의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가 악한 결과일 경우가 있다. 애초에 선악의 구별이 애매하다. 정치의 경우에서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당시의 전광환 목사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았다.

+))

***현**

- 대중이 다 동화되어 단체가 무지화되는 것과 같이 대중의 무지함에 더 나아가 보면 전체주의 또한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서**

- 더 나아가 내가 살고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였을 때, 살고자 행한 나의 마음은 악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행동은 악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인 생각에 의한 판단이 선악을 구별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2. 선정 주제

<p. 94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대한다면 - 앙가주망, 장 폴 사르트르>

*현

- 책 속에서는 앙가주망을 '주체적으로 관계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앙가주망이 책에서 말하는 뜻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자격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책에서는 앙가주망 하는, 즉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대해 선택과 행동은 자유이지만, 자유가 보장됐을 때 그 자유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앙가주망에 참여하는 두 번째 대상인 세계는 모든 것들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모여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면은 불교 사상 속 윤회 사상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앙가주망을 SNS와 함께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우리의 SNS 참여는 자유롭지만, 만일 우리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을 경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올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정치적인 면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시선으로 해석한 앙가주망의 뜻이 시기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바라보면, 대다수 사람의 본인의 인생 속 희로애락 전부가 아닌 희(喜)만을 보여주고 있기에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하는 생각에 격차를 느끼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치적인 면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이용한 가짜 뉴스나 정치적 선동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경

- SNS에서 느끼는 소득격차가 확실히 큰 것 같다. SNS에서의 모든 선택과 결과는 나에게 책임이 있지만, 시작한 것 또한 나의 선택인데 왜 SNS에 책임을 무는지 잘 모르겠다. SNS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이지, SNS 자체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SNS는 정보 전달 능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SNS 자체를 문제 삼아 비판하는 것은 의문점을 품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 *현

- 앙가주망은 주체적으로 일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고, 선택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경 말에 동의!

*서

- 최근에 피터 비에리의 <자기결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관

계적인 측면에서 나를 보되 내가 아닌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봐야 진정한 자기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양가주망을 말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외부의 현실은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러한 현실’이 된 것이므로 외부의 현실은 곧 ‘나의 일부’이고 나는 ‘외부 현실의 일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주장과 피터 비에리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자기결정인가, 나와 외부의 현실을 동일시하는 것이 자기결정인가?

+))

***경**

- 사회 구성은 나를 제외하고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르트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예시에 전쟁이 있듯이, 전쟁이 일어난 후 전쟁에 대한 온전한 공포를 느끼는 것도 우리지만 전쟁 속에서 징병 되고 피해를 보며 약탈당하는 것 또한 우리이다. 그러니 이 사회에 대해 곧 내가 이 사회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서**

- 하지만 양가주망 자체도 주체적으로 관계한 일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내가 주체적으로 관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되기 어렵지 않나?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맞지만, 전쟁의 예시에서도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전쟁에 참여하는 행동이 비롯되는 것 아닌가?

***경**

- 하지만 타인을 지키고 싶은 것 또한 나의 선택 아닌가? 이 사회는 나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은 다 다르다. 이 자체가 양가주망이라고 생각한다.

***현**

- 애초에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선택하고 행동하는 건 결국 내 몫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3. 선정 주제

<p. 62 성과급으로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까? - 예고된 대가, 에드워드 데시>

*경

- 처음에 나는 성과급이 상당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성과와 혁신이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성과에 대한 채찍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두는 것이 혁신에 더 도움이이라고 말한다. 최근 사회에서의 개인들은 명품을 구매하는 등의 과소비로 나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그로 인한 기쁨을 주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이렇듯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것이 성과급을 주는 것보다 나 스스로에게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이 모여 조직이 이뤄지므로,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조건 계급별로 성과급을 주기보다는 해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과연 이 사회가 우리가 혁신을 일으키고 성장할 수 있게 나의 실수를 당당히 인정할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했다. 이런 대한민국 내에서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 혁신에 있어 성과급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졌다. 분명히 성과급을 줌으로써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었다.

*서

-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랜덤한 순서로 나오도록 설계된 상황 속에 놓인 쥐에 대한 실험이 있지 않은가. 성과급을 주되 변동비율 강화 방식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동비율 강화는 다음 강화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나 과정이 일정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것을 말한다. 이 책에서 말하듯 성과급을 준다는 가정하에서는 모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급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변동비율 강화 방식으로 주었을 때 모두에게서 최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경

- 극단적으로 완전히 도박성이지 않은가. 로또와 시스템이 비슷하다. 될 때까지 무한하게 도전하는 것은 인간이 무한하다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변동비율 강화 시스템이 사회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 하지만 혁신에 있어서 모두에게 혁신의 장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 사람을 믿어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고 했을 때 성공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다. 성과를 통해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통해 혁신의 장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대중의 무지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에게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군대에서의 공사 현장에서는 일당 얼마를 주는 시급제와 결과당 지급을 하는 성과제가 있다. 시급제의 경우 일만 하면 돈을 준다고 한다. 이러면 시간만 보내고 성과를 내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과제로 진행할 경우 더 적은 시간에 더 많고 좋은 결과를 내놓게 된다. 고로 혁신에 있어서는 성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 책의 의견에 동의한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는 필요하다. *현의 예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나 또한 일의 기한을 주지 않으면 잘 하지 않게 되고 '월급루팡'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주어진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사람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혁신까지 다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경**

- "한 번 용도를 규정해 두면 사람들은 좀처럼 그 인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카를 둔커는 '기능인식의 고착'이라고 명명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원의 의견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현**

- 현행 제도의 변화 혹은 지속에 관해 얘기해 보면, 현행 제도를 내에서 잘 해내 가는 게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봤지만 인간 전체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더 진화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제도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원의 의견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

***윤**

- 책의 내용에 동의한다. 성과급이 일의 능률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과급으로 인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이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인데, 혁신하고자 하는 거면 성과

급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할 사람을 믿고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

- 그렇다면 누가 혁신을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정하나? 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하지 않은가?

***경**

- 전반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좀 더 혁신의 장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엘리트들에게뿐 아니라 모두에게 너를 믿고 해보라는 말을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기에 혁신이 더 많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되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4. 선정 주제

<p. 155 권위를 만드는 세가지 요소 - 카리스마, 막스 베버>

***원**

- 책에서는 '역사적 정당성', '카리스마', '합법성'이 권위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한다.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카리스마란 '비일상적인 타고난 자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카리스마는 모두가 갖기 어렵다. 고로 권위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갖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정당성과 합법성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역사적 정당성도 모든 리더가 지니기엔 어렵다. 그렇기에 결국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합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합법성을 갖는 것은 관료 기구에 의한 지배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합법성만으로는 인재를 발탁하고 동기부여를 시키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론적인 사고가 된다.

- 전광훈의 경우 권위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본인의 목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합법성을 만들어냈고, 타고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꼬아냈으며 코로나 시절에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목사인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역사적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였다. 책에서 역사적 정당성은 쉽게 날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역사적 정당성 날조의 정확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 권위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의 방법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발탁해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현대 사회의 조직 운영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막스 베버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해 기본적인 설계 개념과 적용 기술을 파악하고 재현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

- 이 책에서는 너무 국한된 리더십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챗GPT가 유일하게 갖지 못하는 것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모두가 할 수 있게 행동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챗GPT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에게 행동의 올바른 이정표를 설정해 줄 수는 있어도 모두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는 없다. 고로 리더십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
- 최근엔 ‘카리스마형 리더십’ 대신 리더가 상급자처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의 위치에서 함께 해보려고 격려하는 ‘서번트형 리더십’이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너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또한 역사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역사는 모두 사람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역사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현**

- 이 책이 옛날 리더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현실적인 리더에 대해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리더랑 보스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번트형 리더십은 리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또한 경로의존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환경적 요소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 *경

- 리더십과 팔로우십으로 분류되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인력거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 가라고 재촉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인력거의 자리에 짐을 싣고 다 같이 짐을 끌고 가는 것은 팔로우십이다. 고로 리더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윤**

- 시대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기준, 권위를 만드는 요소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세상이 평화롭거나 평온한 상태일 때는 서번트 리더십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난세에 영웅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세상이 어지럽거나 국제적으로 충돌이 많을 때는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해서 끌어가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리스마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이 국제적인 시점에는 카리스마형 리더가 필요하다.

+ *현

- *윤 의견에 덧붙이자면. 민주주의에서의 발전 과정은 건국 당시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반공주의 리더가 필요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군 정권이 지속됨으로 인해 민주적 리더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가 필요한 것 같다.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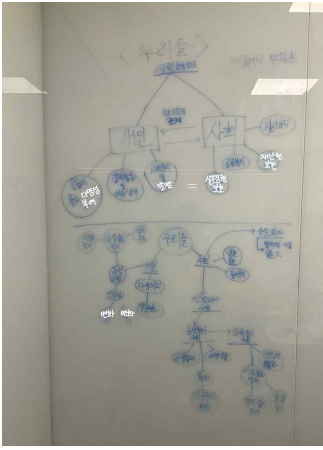
- 어떠한 형태의 리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 조직의 구성원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카리스마, 역사적 정당성, 합법성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구성원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원들을 설득한 뒤에 리더십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할 테고, 구성원이 쉽게 통제가 가능하다면 본인의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듯 구성원마다 잘 어울리는 리더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2024 년 4 월 9 일

참가자대표 : 송*서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목적목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 년 4 월 30 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송*서	학번	2021****	이름	최*원
	학번	2021****	이름	김*윤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변*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경				
참석인원	5 명							
선정도서	<우리들> - 에브게니 자마친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240430 심비우스 북클럽 2회차 <우리들> - 에브게니 자마친</p>  <p>1. 주인공 D-503이 개인적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러한 변화가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개인과 사회의 관계)</p> <p>*경 - 주인공 D-503이 I-330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면서 많은 감정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p>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적인 문화에 있어서 전부가 공통된 답을 내놓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

- 개인이 곧 사회이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개인이다. 고로 개인의 자유를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개인보다 사회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면 사회도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 국가는 보안의 업무를 위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굳이 개인의 삶에 개입한다기보다는 큰 틀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라는 울타리 내부에서의 일들은 전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자유로운 생각에서 나온다.

***원**

- 정치학에서 다루는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이뤄진다. 나아가 이러한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의 해결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모든 건물이 유리로 되어있고 지정된 상대와 지정된 시간에 데이트해야 하는 <우리들> 속 사회를 보면 당연히 국가의 통제는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빈부격차 등 자유로부터 오는 또 다른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분배와 같은 통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절대적으로 하나만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서로 균형을 이루고 양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

-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형성해 살아가는 이유는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개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등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권이 보호된 상태에서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가 다채롭고, 유복하게 한다. 즉, 국가가 굳이 개인의 삶에 개입한다기보다는 큰 틀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라는 울타리 내부에서의 일들은 전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자유로운 생각에서 나온다.

***서**

- 주인공 D-503은 국가의 통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자유가 담긴 글을 적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많이 드러내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국가의 통제가 자신을 비롯한 타인들의 삶을 매우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듯 보였고 마침내 본인의 자유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들> 속의 세상은 국가의 통제가 완벽하기에 잘 굴러가는 세상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보았을 때, 국가의 통제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불가능하기에 많은 반발이 있을 테고 그렇기에 자유의 소중함과 중요성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다.

2. <우리들> 속의 디스토피아적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

- 책 속의 디스토피아 세계에서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감정이 통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글거린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감정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오글거린다'고 치부되곤 한다. 요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사회가 알게 모르게 우리 서로의 감정 표현을 숨기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론적인 사실만으로 이야기해야 하며, 개인적인 평가에 감정은 배제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감정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

Q. 이 책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도현이 생각하기에 정치에서는 감정이 더 중요한가, 이성적인 사실이 더 중요한가?

- 정치인이라면 감정을 이용해야 하고, 대중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정치인이란 이성적이고, 대중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빈 곳을 배우고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가 대중에게 이성적인 판단력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기본적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고 책임에 대한 강제성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 개인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든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 소설 속에는 '단일제국', '은혜로운 분'이라는 신성불가침한 부분이 등장한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특정 어느 분야에서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다수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유사하게 보인다

고 생각한다.

***서**

- 책 속 사람들의 거주지는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고 서로의 행동을 서로가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책 속에서는 시간을 표로 보고 오늘이 며칠인지,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건지 구분하지 못한 채 지금은 표 속의 정해진 시간이기에 정해진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이 현대 사회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들의 대부분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해서 일하고 유사한 시간에 퇴근하며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책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수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사랑을 이해할 때도 함수화하여 이해하고, '모든 것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이 말한 것처럼 감정이 뒷전이 되고, 이성만이 중요해진 사회의 모습이 책 속 이러한 모습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원**

- 책 속의 사회는 감시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SNS 사용과 알고리즘 추적을 생각해 보면 책 속의 감시받고 통제되는 사회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용하는 것마다 정보화되고 사용기록이 쌓이면서 우리의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알고리즘 정보를 이용해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소셜미디어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소비를 재촉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책 속의 감시받는 사회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현**

- 사회의 정형화 내에서 다양성이 추구되지만, 개인적 다양성과 집단적 다양성으로 나뉘는 사회 속에서 알고리즘의 강화로 인해 개인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집단의 다양성만 중요시되고 개인의 다양성은 무시되는 느낌이 든다. '우리 집단'과 '타인 집단'으로 구분되어 묶이는 일이 많아진 것 같다.

***경**

- AI와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불법화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 알고리즘과 관련된 법 조항을 만들어 입법화시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통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룹화되고 카테고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가 개인의 자유를 막는다면,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하고 통

제해야 하는가? 개인의 삶이 원활하도록 알고리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현**

- 국가적 차원의 규제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호 정책은 독점을 막는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 정책 간의 구분이 중요한 것 같다.

3. <우리들> 속의 배경 시기는 29세기이다. 오로지 과학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사점과 비판점을 가져야 하나?

***경**

- 현대사회 물론 개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철학적인 면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해결책을 찾아 발전하고 발전한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도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이 과거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I의 발전 또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스러운 과도기의 과정일 것이다. 철학적인 자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지금 이 책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이겨내고 최선의 정치 체계라며 나타난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신격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악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는 감소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형태 안에서 합법적인 권한으로 독재를 행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띤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무지함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폭력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많아지면서 (국가적 통제가 많아지면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Q.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과연 유토피아적인 시기가 존재했나?

- 유토피아적인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Q.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옳은 것인가?

- 유토피아는 철학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유토피아인 것이다.

***원**

- 현대 사회로 올수록 기술의 발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다. 계절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술 발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님을 몸소 느끼고 있다.
- 소설 속 자연과 문명 사이에는 담벼락이 존재한다. 주인공은 “인류는 ‘녹색 담벼락’을 세운 다음에 비로소,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무와 새와 동물이라는 비합리적이고 끔찍한 세상을 차단한 다음에 비로소 야만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한다. 이는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기술 개발을 일삼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한 저자의 염려가 담긴 표현이 아닐까? 합리성을 따지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않고 홀로 살아남을 방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가속화되는 기술 개발과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합리적인 선택 즉, 기술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서**

- 현대 사회에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자연을 마주하기 매우 힘들다.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쓰여 있는 잔디밭도 누군가가 밟고 지나간 흔적들이 막연하다. 길을 다니면 자주 보이는 들꽃들과 풀들은 짓밟혔던 흔적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 세상에 이 책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자연과 단절되어 자연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미래 모습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원의 말처럼 인간은 자연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자연에서 의식주 중 ‘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고대의 인간은 자연에서 의식주 모두를 해결했다. 자연이 있기에 인간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4. 사랑과 인간성에 대해서, 사랑이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경**

- 인간성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처럼 사랑을 겪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를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

- *경의 말에 동의하지만, 사랑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암묵적으로 '좋은 애인'이라고 말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그 틀 안에서 머물러 하며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대가를 포기하고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사랑을 함으로 개인의 자유는 억압된다.
- 하지만 사람의 인간성에 다가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희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 *경

-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누구도 성공하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

- 주인공 D-503이 I-330을 만나며 겪는 변화는 이 소설이 전하는 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랑이 '인간다움'을 완성한다고 생각한다.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대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언가,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맺을 수 있는 어떠한 연결고리 같은 것을 떠올린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사랑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성별 간의 유성애적인 사랑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 애완건을 향한 사랑과 같은 모든 사랑들은 인간성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윤**

-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분명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이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나를 바치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서**

- 사랑은 개인의 자유 회복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책 속에서는 사랑과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는 편이다.

4-1. 인간성이 무엇인가?

***현**

- 인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성에 대해서는 모두의 기준이 다르다.

***경**

- 인간성은 존재한다.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남는 것에 대한 본능이 있다. 인간성이란 삶이다. 존재하고 싶은 것이 인간성이고 삶이 진행되는 과정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된다.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5. <우리들> 소설은 주인공 D-503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된다. 1인칭 서술 방법이 소설의 진행과 이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이 효과적이었나?

***현**

- 일부러 1인칭으로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틀 밖의 3인칭에서 이야기를 바라보면 그 틀만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 틀 안에 있게 되면 틀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감정 이입이 되면서 결국엔 독자도 그 상황 내에서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할 수 있다.

***윤**

- 작가는 처음엔 공산주의를 신봉하다가 체제의 모순을 느끼고 전향한 사람이다. 고로 1인칭으로 서술한 것은 타인들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소련 동포들도 자신이 느낀 바를 느끼게 하고 싶어한 것 같다. 지금 소련의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부디 나처럼 깨우치길 바라는 것 같다.

+ *현

- 자기반성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소련의 체제를 벗어나고 변화시키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정형화된, 딱딱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원**

- 자연과 동떨어져 있고 기술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처럼 현대 사회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과 동떨어지게 되었다. 작가는 기술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기술의 발전과 자연의 유지 사이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존할 필요가 있다.

***서**

- 책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분명히 말해서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고 <이러저러하므로 사랑한다>가 되어야 하니까요.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이 책에 대해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주인공 D-503의 1인칭 서술은 처음엔 '분명한' 것들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굉장히 추상적인 묘사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1인칭 서술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분명히', '반드시'라는 단어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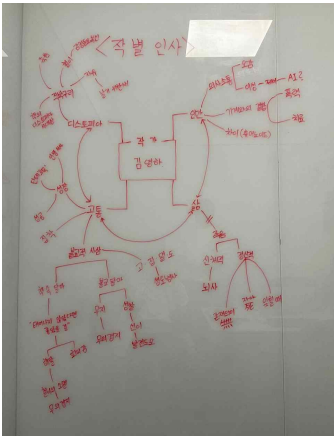
-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철학적이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

2024 년 4 월 30 일

참가자대표 : 송*서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목적목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 년 5 월 7 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송*서	학번	2021****	이름	최*원
	학번	2021****	이름	김*윤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변*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경				
참석인원	5 명							
선정도서	<작별인사> - 김영하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240507 심비우스 북클럽 3회차 <작별인사> - 김영하</p>  <p>1. <작별인사>는 주인공 철이가 죽은 직박구리를 발견하고 직접 땅에 묻어주면서 시작된다. 직박구리의 의미는 무엇일까?</p> <p>*경 - 주인공 철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살아 숨 쉬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제일 겁이 많고 한 발 뒤에 물러서서 고민하는 모습이 철이를 나타내는 것 같다.</p>							

***현**

- 직박구리가 책 내의 시대상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배경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책 내에서 '죽어감'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고 말하고 싶다. 새는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말한다. 하지만 새가 죽음으로 인해 철이가 마주할 암담한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사라진 시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원**

- 인간과 휴머노이드를 구분 짓는 것이 '죽음'이다. 휴머노이드는 죽어도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인간은 불가능하다. 휴머노이드와 인간(생명을 가진 생물)을 구분 짓기 위해 처음부터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윤**

- 흔히들 새는 자유의 상징으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책 초반에서 주인공 철이가 죽어있는 새를 발견하는 모습은 마치 자유의 상징인 새의 추락한 죽음과 같이 철이도 험난한 여정을 헤쳐 나갈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를 찾게 되지만 결국에는 추락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

- 소설 속 직박구리는 새끼 새로 묘사된다. 어린 새들은 날기 위해 뛰어 들었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새끼 새가 날기 위해 날았다가 죽은 것이 아닐까 싶다. 철이도 아빠의 만류에도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가게 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결국 철이도 죽음을 맞이했기에 직박구리가 철이를 의미하는 것 같다. 책 속에서 철이는 죽음을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으로 분류한다. 직박구리가 죽은 것을 발견한 것은 첫 번째 죽음, 직박구리를 물어준 것을 두 번째 죽음으로 본다면 철이가 직접 직박구리를 물어준 것이 본인의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2. 책에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팔, 다리, 뇌의 일부 혹은 전체, 심장이나 폐를 인공 기기로 교체한 사람을 여전히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있다. 인간의 신체 부분이 기계로 교체되어도 여전히 그는 인간이다. 그가 여전히 인간인 이유는 무엇인가?

***경**

- 최근에 세계 인구 전체가 사이보그가 되고, 인간이든 사이보그든 강자로 살아남으면 그만인 세상을 다루는 게임을 했었다. 그 게임 속의 인간들은 짐승과 다를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람이지만, 폭력을 위해서 (남을 제압하기 위해)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일 수 없다.

***현**

-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것은 인간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면 의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 이성적인 부분이 인간의 여부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된다. 이성과 본능을 제어할 줄 알아야 인간이다.

Q. 인공지능도 제어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AI에게 인권을 부여해도 되는가?

A.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산물이자 도구적 요소일 뿐이다.

***원**

- 이 질문을 듣고 프랑켄슈타인의 사례가 생각났다. 만약 프랑켄슈타인이 기괴하지 않은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했다면 타인들이 프랑켄슈타인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지 않았을까? 비슷한 사례로, 그 사람의 뇌를 인간의 모습이 아닌 조금 기괴한 모습의 다른 몸에 주입해서 깨웠을 때, 본인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타인이 보았을 때는 기괴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윤**

-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할 줄 알며, 공동체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안다면 걸모습이 어찌 됐든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오감을 활용한 의사소통이란 오감을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대화할 땐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말을 듣는 청각을 사용하고, 채팅을 통해 의사소통할 때는 마찬가지로 시각과 채팅을 작성하는 촉각을 사용한다. 인간이라면 서로가 눈을 마주 보고, 촉각도 느끼고, 서로의 소리도 듣는 등 오감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 나의 주관에 근거를 들어 잘 설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 같다. 타인의 영향을 받고 살아도 '나'는 '나'이다. 나의 주관을 뒷받침할 근거가

주관적이어도 괜찮으니 충분히 근거를 대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한다.

- ChatGPT도 본인의 의견을 주관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냐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인간을 닮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고 여전히 기계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경**

-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인간다움’은 정신적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주인공 ‘철이’ 또한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속은 기계이다.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피가 아닌 빨간색 잉크를 흘리고 근육처럼 보이는 인공섬유를 가지고 있다. ‘짱구는 못말려’ 애니메이션의 극장판 에피소드 중, 짱구의 아빠가 로봇이 되어 다시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진짜 인간인 아빠와 로봇인 아빠가 나오는데 로봇 아빠는 진짜 인간인 아빠의 기억을 다 갖고 있다. 이때 로봇 아빠는 인간 아빠보다 부성애도 더 뛰어나고 아들인 짱구를 더 많이 챙겨준다. 그리고 짱구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하지만 로봇 아빠는 여전히 로봇일 뿐이다. 그렇다면 로봇 아빠는 아빠가 아닌가?

3.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가?

***서**

- 이성적 죽음과 감성적 죽음으로 나뉘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될 때, 나의 자아와 정체성을 잃었을 때 진정한 감성적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의 예시로는 공산주의 사회 속 톱니바퀴처럼 생활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할 수 있다. 육체는 살아있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지만 내가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 이성적인 죽음은 뇌사라고 생각한다. 심장이 뛰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심장은 이식되어 타인을 살릴 수 있지만 나의 뇌가 타인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뇌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사가 진정한 이성적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현**

- 가치관의 죽음 또한 인정하지만, 뇌사가 진정한 이성적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감성적 죽음, 즉 사회적 죽음이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히는 때라고 생각한다.

***경**

- 존재의 가치가 의미가 없을 때 죽음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어도 존재의 가치가 없고 쓰임이 없을 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 속 톱니바퀴 적인 삶도 쓸모를 제공하기에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존재하며,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또한 삶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쓸모가 있을 때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윤**

- 생물학적으로 심장 박동이 멈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즉 내가 내가 아닌 상태도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이는 사진을 좋아하고, 예쁘게 잘 찍는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가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해 이를 강요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인물, 풍경을 작은 화면에 담아 사진으로 남길 때 행복과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사진을 내려놓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된다고 한들 이 아이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이 만든 내가 되어 버린다. 나는 이런 상태도 죽음과 다름없는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원**

-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했을 때는 뇌사의 여부가 죽음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인 죽음을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혼자가 됐을 때가 죽음에 다다른 때라고 생각한다. 혼자여도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가 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완전한 혼자란 나의 죽음 이후 슬퍼할 사람이나 나를 기억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의 죽음은 사회적인 죽음이 아닐까 싶다.

4. 고통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책의 등장인물인 선이, 민이, 철이, 달마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고통이란 무엇인가?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

- 불교 속 부처는 이미 한 번 죽고 해탈하여 다시 태어남으로써 만물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주인공 철이는 한 번의 죽음을 겪었지만, 두 번째 죽음을 통해 진정한 열반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부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글 초반에 군인 로봇이 아이의 팔을 자르고 괴롭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는데, 이 책 속에서는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역겨웠다.

-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감정 자체가 고통이다. 고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삶에서 필요하지만, 너무 힘든 마음을 참을 필요는 없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어린 소년이 휴머노이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고통을 더 잘 묘사한 것 같다.

***현**

- 책 속 달마가 정말 불교의 달마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본능, 욕심)을 버려야 사라진다. 고난과 재난을 비롯한 난(難)을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고통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원**

- 고통이 있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이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학생으로서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시험 기간임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한다. 나아가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더 큰 성취감을 얻게 된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또 다른 고통을 느끼며 다음 시험에는 더 잘하리라 다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통이 있기에 하기 싫은 것들을 해내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 무난이라면 성장하지 않게 된다. 극단적인 고통에 의한 질병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Q. 고통으로 인한 죽음은 고통에서의 해방인가?

A. 죽음은 고통을 비롯한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윤**

- 고통이란 행복을 더 잘 느끼게 해주는 “재료”라고 생각한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다면 행복은 일상에 묻혀 행복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흘러갈 것이다. 고통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고통을 느끼기에 행복 또한 느끼는 것 같다.

***서**

- 고통이 있기에 행복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한다. 뇌과학에서는 사람이 과도하게 긍정적이고 사랑스럽다는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을 맞추고 조절하기 위해 폭력적인 감정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되는 감정은 서로의 존재를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 고통과 행복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 *경

- 단테의 <희곡> 속에서는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살아가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 협상의 경우 인질, 인질범, 협상가, 모두가 스

트레스를 받는다. 자신이 절벽 끝에 다다랐음을 느끼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유기적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고통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신에게 고통이란 무엇인가?

***경**

- 고통과 슬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슬픈 결말이 인간이고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 삶이 존재하기에 인간인 것이다. 고통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다. 인간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현**

- 인간은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성공하려면 고통이 필수적이고, 인간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고통이 원동력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영웅적 서사일 뿐이다.

***원**

- 철학을 영유하는 것은 인간만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 고통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고통은 성장의 발판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윤**

- 인간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은 상호보완적인 모든 존재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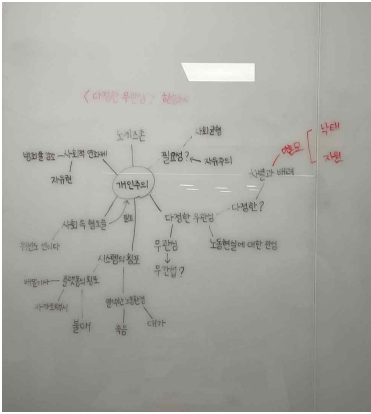
-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나인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고통이다.

2024 년 5 월 7 일

참가자대표 : 송*서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복적복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 년 5 월 14 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송*서	학번	2021****	이름	최*원
	학번	2021****	이름	김*윤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변*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경				
참석인원	5 명							
선정도서	<다정한 무관심> - 한승혜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240514 심비우스 북클럽 4회차 <다정한 무관심> - 한승혜</p> 							
	<p>1. 개인주의란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국가나 사회 등의 집단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며,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태도, 기질’을 말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p> <p>*서 - 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개인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사회라는 것은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인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으면 집단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에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내가 개인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다른 무엇보다 존중하는 태도가 개인주의라고 하면 나는 개인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 나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주의가 필요하다기보다 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의견을 너무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선택지 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내가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릴 적부터 남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나만 믿고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

- 사회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적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적인 사상 덕분에 발전도 이뤄지고, 사회의 균형(개인주의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결과에 있어서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나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윤**

- 사회에는 개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인데, 인간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집단을 형성해 살아온 것조차, 개인에게 그런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린 너무 집단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는 지금껏 개인의 안정을 깨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무리가 와 개인에게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고 하는 등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집단이 개인의 집중과 안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우린 어딜 가든 무리가 우선된다. 식당에 가도 1인 손님을 받지 않는 식당이 아직도 더러 있고, 혼자서 밥 먹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 나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다들 지쳤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겐 어느 정도 개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

- 나는 집단주의를 조금 더 선호하고 '우리'를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내가 개인주의에 대해 정말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혼동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집단이기 이전에 개인이기에 개인인 나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MBTI가 모여 집단이 규정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관 지어 우리의 인생이 모두 집단으로 규정되고 묶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이 책을 읽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

2. '나는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상벌이 그가 속한 집단에게 공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것이 국가, 성별, 인종, 가족, 학교와 같은 "반강제적" 집단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사회적 연좌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연좌제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경**

- 연좌제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좌제가 있어야 (옆에서 잡아주고 훈계해 주고 사회화에 도움을 주어야) 범죄율이 감소한다.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규정에 불법적인 것이지, 옛 과거엔 살인과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죄가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키기 위해 살인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군대 내에서 연좌제로 인한 훈육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집단을 통제하는 가장 통제적인 방법이 연좌제라고 생각한다.

***현**

- 나는 연좌제에 반대한다. 연좌제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한 연좌제는 서로의 잘못을 나서서 밝히는 상황을 유도하고 서로에게 과한 비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좌제의 형태는 동의하나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

- 편견을 더 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떠났을 때,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했다. 좋은 경험도 섞여 있었지만, 인종차별을 겪었던 일은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교환학생들은 서로 뭉치고 어울려 다니는 문화가 있다. 그 무리 안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는 재미와 어려움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종종 편견에 대해 깨닫거나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처럼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의 학생들은 특정 국가의 이야기나 농담에 대해 주로 말을 아낀다. 여기까지는 본인들이 역사를 알고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코멘트하는 것만으로 무례하거나 '너희 나라 사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똑같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특정 국가 친구들을 더 비판하거나, 그 인종을 가진 친구들을 전부 싸잡아 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나는 연좌제가 편견을 가중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서**

- 뭐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저지른 가족 구성원이 사죄하지 않을 경우 내가 대신 사죄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는 가족 구성원은 죄가 없으니 반성할 필요가 없다며 당연한 경우가 많다. 이런 면에서는 연좌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

- 반대한다. 책에서 아시아인이 저지른 범죄는 아시아인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럼 2차 세계대전 당시 동아시아 일대에서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전쟁범죄는 모든 아시아인의 공동 책임이란 말인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엄연한 피해자이다. 즉, 누가 일탈 행위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행위를 한 인물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지난 시간 <우리들>을 읽을 때 우리는 집단에 대한 비판을 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내가 집단주의였나? 하는 생각을 품고 집단을 옹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서**

- 책의 제목처럼 '다정한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관심'이라기 보다는 '다정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회와 좋은 집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 책에서 말하는 '다정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진정한 '무관심'이 아니라 '무간섭'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간섭하지 않을 뿐이지. 타인이 내가 필요할 때는 다정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몸이 좋지 않은 분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나의 도움이 간섭일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정하게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어 미혼모와 무연고 아이들을 돕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적 사상은 내가 개인적인 마음으로 돕고 싶은 사람만 돕는 것도 개인주의적인 것 아닐까. 크게 봐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빈부격차에 대한 사상도 다양하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면서 돈의 여유가 개인의 여유가 된 것 같다.

***경**

- 개인주의가 좋다고 얘기했으나, 개인주의가 정말 중요하다면 미혼모와 무연고 아이들을 돕는 게 개인주의가 아닌 것 아닐까? 저자가 말하기로는, 여유로운 개인이 모여 여유로운 조직이 되어 모두의 행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 안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들 모두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프리카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남들의 발전을 막는 상태가 유지된다. 발전에는 분명 집단주의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

-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Equality'와 'Equity'의 차이 즉, 평등과 공평에 차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을 떠올리며 이야기해 봤다. 세 명의 키가 다른 사람들이 담 넘어 무언가를 보려고 한다. 똑같은 높이의 박스가 총 세 개 있을 때, 평등은 이 세 개를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다. 하지만 공평은, 키가 가장 작은 사람에게 2개의 박스를 주고中间的 키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를 주는 것이다. 만약 박스를 갖지 못한 사람이 담 너머를 볼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평등일 때 한 명은 완전히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고려할 때, 공평일 때는 세 명 모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 이렇듯 상대가 원치 않는 도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정하게, 모두가 일정 수준의 생활 수준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다정하다는 표현과 무관심은 어쩌면 전혀 상반된 느낌을 주는 말들인데, 이것이 붙어 있을 때 주는 이미지가 내가 생각하던 이상적 사회의 모습과 부합하는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다.

***윤**

-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냉전 시대를 보면, 공산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을 공장의 부품처럼 생각하지만,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아닌가. 그 두 사회가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결국 여태까지 살아남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이다.

4. 3장의 어느 '악질' 택배기사와의 추억 부분을 보면 '힘겨운 노동 현실을 아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는가?

***경**

-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각자가 노동 현실을 선택한 것 또한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인한 결과다.

***현**

- 동의한다. 하지만 책 속 택배기사의 사례는 잘못된 것 같다. CJ 택배기사님들은 다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의 파업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뭐든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 운동을 할 때 예시를 들어 생각해 보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너무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조의 파업 사례를 보면,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노조 연합의 그들은 약자가 아닌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다.

***서**

- 노동 현실을 알고 관심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든 과하면 안 된다. 노동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뿐이지, 의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5.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이슈 또한 미혼모 자체보다는 그 이전의 낙태에 대한 것들만 주목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낙태를 반대한다면, 본인의 아이를 책임지려는 미혼모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지원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

- 우선 나는 낙태에 찬성한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가 많이 망가지게 된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저출생을 문제로 삼는 시대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책임지려는 사람들을 옳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원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혼모라고 하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아이니까 책임을 져야지'하는 생각들이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고 타인이 간섭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

-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그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남성의 입장에서 낙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순간 실수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없는 노릇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힘든 사람들도 많다. 낙태의 기회가 단순히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분명한 건 잘못된 이기심으로 발생하는 낙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범 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사회적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허무감이 불러오는 자살이 많다. 자살을 정말 마지막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령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을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관 지어 노령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

- 낙태 자체로는 찬반 의견이 없다. 하지만 미혼모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돌봄은 분명히 필요하다. 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해 줄 테니 아이를 낳아서 길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찾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줄 테니 위치를 잘 잡아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혼모의 면에서는 단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강력하게 책임을 질 양육비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법의 구멍이 심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저출생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합법화될 수 있다. 나는 안락사에 동의하는데, 이것이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원**

- 사회에서 미혼모는 분명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육아와 벌이를 분담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6. 우리가 SNS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다보면 사회에서 집단적 사고와 편향으로 내 생각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인 것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최근들어 이와 관련되 혐오가 많아지는데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 혐오를 없애기 위해 개인주의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 문화는 개인적인 사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싸우게 되더라도 서로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서**

- 집단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한다. 어느 순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때, 나의 다름을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과 군중심리로 인한 통일 사례가 많다고 생각한다. 다름은 언젠가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혐오는 더 큰 혐오와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

- 위선도 선이다. 위선이 없으면 이 사회가 진실하게 선한 사람이 없게 된다. 모두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만 말할 수 있나.

***윤**

-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보로 분열과 적대심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능력이 함양되도록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 년 5 월 14 일

참가자대표 : 송*서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양식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복적복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 년 5 월 21 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C.Square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송*서	학번	2021****	이름	최*원
	학번	2021****	이름	김*윤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변*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경				
참석인원	5 명							
선정도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p data-bbox="172 1480 469 1563">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598 1059 1337 1160" style="text-align: center;"> <p>240521 심비우스 북클럽 5회차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p> </div> <div data-bbox="507 1178 938 1536"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data-bbox="517 1559 686 1576" style="text-align: center;"> <p>고통과 행복의 상관관계 그래프</p> </div> <div data-bbox="517 1592 938 1868"> <p>태경 상운</p> <p>주제 (고통 → 행복)</p> <p>도현</p> <p>고통</p> <p>윤서지원</p> <p>행복</p> </div> <div data-bbox="962 1570 1430 1879" style="text-align: right;"> </div>							

0.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쾌활함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쾌활의 조건이 육체적 건강임을 말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본다.

***원**

- 고통과 지루함의 회로를 중요시하는 부분에서 <작별인사>를 떠올렸다. 쾌활함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경**

- '네가 살아가는 고통을 즐겨라. 고통은 당연한 거다. 인간의 존재는 고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관념이 나의 관념과 유사해서 좋았다. 하지만 '꼰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면에선 확실히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현재에 적용하기엔 예전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

-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서**

- 고통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다. 고통은 개인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윤의 말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의지와 표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쇼펜하우어의 주장과 접근 방식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경**

- 동의한다. 우리가 의지와 표상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한 근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고통이 수반되는 세계에서 부정 탈락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쇼펜하우어라고 생각한다.

***서**

- 동의한다. 쇼펜하우어의 사상 속 고통은 필수적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고통과 의지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가깝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의지로 한 행동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 또한 본인의 의지이다.

***현**

- 동의한다. 나는 평소 니체의 사상을 좋아하는데, 니체가 쇼펜하우어에 대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쇼펜하우어가 문장마다 거부, 부정, 체념 등을 외치고 있고 이 책에서 세계, 삶, 고유의 정서를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났다.'라는 말 속 '고유의 정서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쇼펜하우어 사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원**

- *서의 말처럼 고통과 의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이 세상을 너무 좌절감으로 보는 것 같아 쇼펜하우어에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현재의 시간을 오롯이,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라는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대부분의 현대 사람이 본인의 삶에 과열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 더 공감된다.

2. 영상(<https://youtu.be/Fs0qitF-qWM?si=Thg1Dd9WcFZelkMX>) 속에서는 욕망의 양면성과 그것이 수반하는 고통,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쇼펜하우어 또한 동의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

- 쇼펜하우어에게 동의한다. 일체유심조가 없다면 너무 희망이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잘 사는 사람과 잘 살지 못하는 사람 모두 주말을 해변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에게만 여유가 허락된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조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 살기 위해 애쓰기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만든 페르소나와 나의 진정한 페르소나가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설정은 본인에게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

- 일체유심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있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 자체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욕망을 갖게 되는 것도 마음먹기의 문제고, 욕망이 불리일으키는 욕망의 양면성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 또한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3.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고통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이며, 행복의 본질은 어떻게 추구된다고 생각하는가?

***현**

- <작별인사> 책을 다루면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의견이다. 난(難)이 있기에 삶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 아닌가? 고통은 삶의 본질이고 고통스러운 와중에 간간히 행복이 끼어들어서 고통을 잠깐 상쇄시켜 준다. 그렇게 점점 고통을 줄여나가 해방되는 것이 인생의 마무리이다.

***원**

- 인간의 본질이 고통인지 행복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고통과 행복은 바늘과 실처럼 쉽사리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가 더 잘 느껴지며, 비로소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윤**

- 우린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고통을 필수적으로 느낀다. 우리가 무더져 느끼지 못할 뿐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도 고통이라면 고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통 속에 살아가나? 앞서 나는 고통이란 행복을 더 잘 느끼게 해주는 "재료"라고 말한 적 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가다 찾아오는 행복을 더욱 잘 느끼게 해주기 위해, 작은 행복이라도 그 행복이 주는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린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가다 궁극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이 가끔 찾아오는, 오랜만에 오는 손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머무는 고통스러운 일상이 아니라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자기의 인생을 가꾸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을 윤리적 행동의 기초로 바라보았는데, 윤리적 관점에서 동정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대 사회에서도 동정심의 윤리관이 적용될 수 있는가?

***현**

-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정심이라는 것은 남의 불행을 나에게 대입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

- 동정심과 윤리는 다르다. 동정심은 윤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타적인 것은 윤리와 다르다. 인간이 정해놓은 틀, 당위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윤리이다. 상대방을 동정하고 싶냐의 여부에 윤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윤리라는 것은 큰 틀에 부합하는 것이지 동정심에 움직일 것이 아니다. 윤리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절대적 당위. 반면 동정심은 학습되는 것이다.

***원**

- 동정심은 윤리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도덕 시간의 이유는 아이들의 동정심을 키우기 위함이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행동과 관련이 없다면,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을 기를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윤**

- 동정심이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본능이 동정심인 것이다.

***서**

- 동정심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요즘, 동정심을 비롯한 타인을 향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동정심이 윤리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윤리적 행동은 나의 사상과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사상과 마음이 동정심을 말한다면, 윤리적 행동 또한 동정심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5-1. 본인이 생각하는 윤리란 무엇인가?

***현**

-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리이다. 사회 속에서 통칭하는 윤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바뀌게 된다. 고로 시대가 바뀌고 개인의 사상이 바뀌면서 변하는 것이 윤리라고 생각한다.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윤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도덕과 윤리는 학습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

- *현의 생각과 같다. 프로이트가 말하길, 좋음과 옳음과 쾌락은 어디까지가 옳은지에 대한 기준에 따른 분류라고 했다.

***원**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이 윤리이다.

***윤**

- 윤리의식 혹은 도덕은 동정심을 더욱 뿌리 깊게 내리게 하며, 공동체의 원활한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상체계라고 생각한다.

***서**

-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고 사회의 운영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이 윤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인의 의견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한 차이가 더 세세한 윤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것이 있다면?

***현**

- 북클럽을 통해 다양한 책들을 읽음으로 많은 다양성을 배운 것 같다. 인생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 책을 적어내는 것처럼 인생 또한 빈 종이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인과 인생의 한 부분들을 같이 보내면서 인생이란 글의 중간 부분은 타인의 것과 겹칠 수 있지만, 결국 각자의 줄거리와 결말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타인의 글을 살펴보고 공유하며 성장한 것 같다.

***원**

- 북클럽을 처음 시작할 때 고민도 많이 됐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빠듯한 4학년에게 북클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물론 꼬박꼬박 책을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었다. 하지만 평소 마음이 맞는 동기들이자 친구들의 권유로 시도하게 되었고, 활동이 끝난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인생을 바라보는 깊이는 달라졌다. 해보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안에서 배운 것도 많기 때문이다. 가끔 사람들이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나 내가 해본 적 없는 생각들을 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내 주장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되기도 했다.

- 또한 졸업 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북적북적과 함께한 한 학기가 벌써 끝나가 아쉽지만, 북클럽을 통해 얻은 마음의 양식으로 한층 더 성장한 내가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윤**

- 책 한 권 읽기 쉽지 않은 요즘, 누가 강제로 시켜서 독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 맞는 학우끼리 모여 독서하고, 더 나아가 독서 습관을 들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식견과 철학 아무런 대가 없이 함께 공유하고, 얻어갈 수 있어서 배부른 것을 넘어 뇌부른 시간이었습니다.

***경**

- 다들 열심히 참여해 줘서 고맙고, 각자 다른 생각으로 시작했기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북클럽에서 다루기로 선정한 책도 다 너무 좋은 책들이어서 좋았고, 진행하다 보니 정한 순서대로 이야기들이 다 이어져서 신기했다.

***서**

- 북클럽을 진행하는 데 있어 팀장을 맡게 되고 내가 괜찮은 팀장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부족한 면도 많고 답답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 잘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고마운 점이 많다. 본인의 과제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면서 매주 책 한 권씩 읽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꼬박꼬박 읽고 준비해 줘서 많이 고맙다. 나의 의견을 더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결론

- 마무리 지으며

모두 이제는 각자의 철학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제는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어느덧 마친 우리를 발견했고, 서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둘째 주차에는 1주일 단위로 만보기 대결을 펼쳐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삶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서로 커피 내기

를 하며 힘든 토론의 과정을 증진한 체력과 친구들끼리의 소소한 추억이 되는 커피 내기로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차였던 5월 마지막 주에는 도서관 스터디룸에 모두 모여 마인드맵을 각자 원하는 책으로 2시간씩 그리며 서로의 마인드맵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또 평가하며 다시 한번 서로가 각자 흥미롭게 읽었던 책들을 이야기하고 복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각자가 선정한 책이 모두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읽었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서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만들고 사회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펼칠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니체와 앙가주망 등 철학을 통한 사회 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북클럽 만남이었던 예브게니 자마친의 <우리들>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를 소설 속 디스토피아와 비교하며 SNS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장단점을 논하며,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인간성 그리고 자유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책으로 읽었던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인 '철이'를 통해 인간, 삶, 그리고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며 저번 주차였던 <우리들>과 이어서 소설 속 배경인 디스토피아와 사회를 비교하며 미래를 끌어 나갈 세대인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며, 소설 속 불교 사상에 매료되고 종교를 통한 철학의 의미와 쉬운 전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책인 <다정한 무관심>에서는 개인주의란 무엇인지, 사실은 개인주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인지를 주제로 토론하고 책의 내용을 각자가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책에 제시되는 한국 사회의 혐오와 갈등에 대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토론하며 우리에게 서로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관심과 무간섭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책으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를 통해 고통과 행복 그리고 의지의 관계를 배우며 각자가 생각하는 고통과 행복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지와 표상 그리고 행복의 의지부정, 고통의 근원인 욕망성의 양면성과 동정심이란 어디에서 기초하는지 앞서 읽고 공부했던 4권의 책들을 바탕으로 철학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북클럽은 지금까지의 북클럽과는 다르게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밌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책 한 권 읽기 쉽지 않은 요즘,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독서하고 독서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시간이 되어 다양한 식견과 철학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함께 공유하고, 얻어갈 수 있어서 '뇌'부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에 저

희 5명은 이번 복클럽을 하며 더 깊이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는 친구들과 복학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라며, 먼 시간이 지나서도 함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4 년 5 월 21 일

참가자대표 : 송*서